

2012. 3. 20.

## 보도자료

이 자료는 3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 〈5차〉 양극화로 치달는 기업 경쟁력

### 〈6차〉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 일 시: 2012년 3월 20일(화) 09:30 ~ 16:00

- 장 소: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

□ KDI는 3월 20일 오전에 기업경쟁력 부문, 오후에 글로벌 부문에 대한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를 개최,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정책방향을 제시

○ 지난 2월 7일부터 진행해 온 총론, 복지, 일자리, 가계부채 부문 토론회에 이어, 기업경쟁력, 글로벌 부문을 다루는 이날 행사로 6회에 이르는 전체 공개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함.

□ 우천식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경쟁력 부문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방위적, 개체적 양극화'로 심화되는 한국의 양극화 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선도부문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경쟁력 낙후 부문의 자생능력을 끌어올릴 '兩動 전략'인 '동태적 시각에서의 동반성장' 전략을 제안함.

\* 한국의 양극화는 특정 대상 집단 간의 '유형적 양극화'에서 동일집단 내 개별주체 간의 '전방위적, 개체적 양극화'로 심화되어 전개

○ 토론회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1본부장, 최영희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등이 참석해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안함.

□ 한편, 글로벌 부문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로서 첫째,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효율성 제고, 둘째, 개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조달과 더 큰 시장 확보, 셋째, 개발협력 등을 통한 국격 제고, 넷째,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제시

○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주동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글로벌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과제를 살피고, 능동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

#### ※ 문의

- 기업경쟁력 부문 공개토론회

: 우천식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02-958-4139)

- 글로벌 부문 공개토론회

: 차문중 KDI 개발협력센터 소장(02-958-4204)

❖ 첨부 #1. 기업경쟁력 부문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요약

❖ 첨부 #2. 글로벌 부문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요약

❖ 첨부 #3. 「한국경제의 재조명」 5·6차 공개토론회 프로그램

## ❖ 첨부 #1. 기업경쟁력 부문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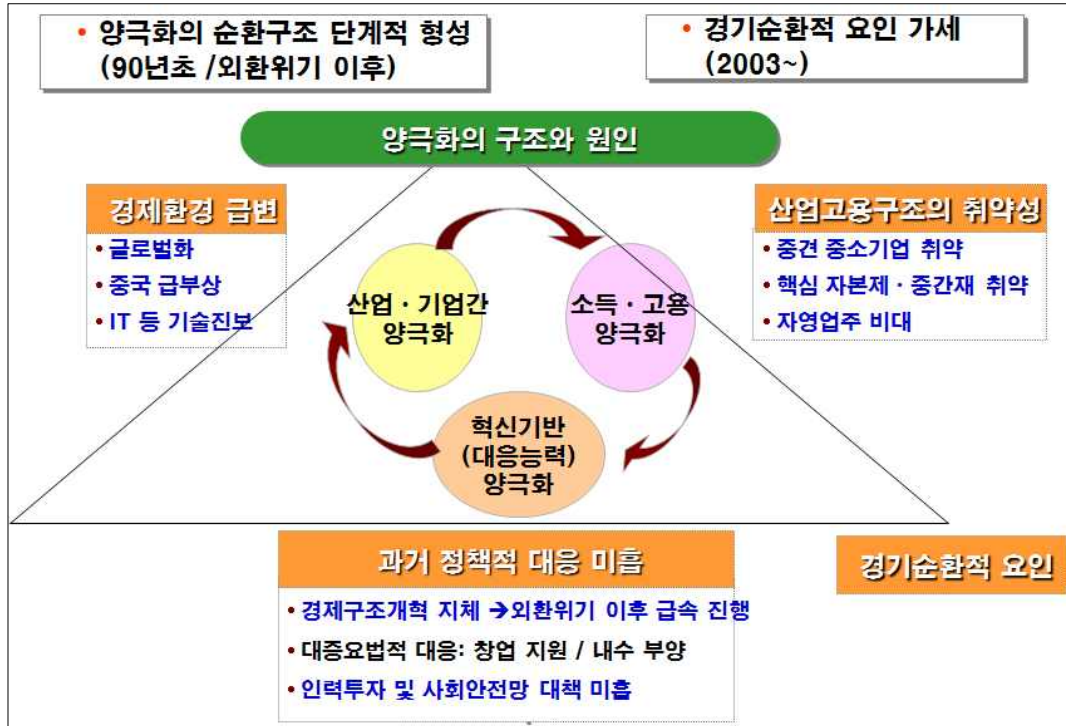
# 양극화로 치달는 기업 경쟁력

우 천 식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1. 개 관

- 실태: 90년대 이래,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기에 본격화된 산업·기업의 추세적 양극화, 경쟁력 성과 격차 확대는 최근의 경기침체 및 저성장 국면 속에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산, 심화되는 양상
  - 특정 대상집단(산업, 부문, 업종, 기업규모, 고용·소득그룹 등 기준)간의 성과격차를 의미하는 종래의 '유형적 양극화'는 동일집단 내 개별주체간의 격차 확대를 의미하는 '전방위적, 개체적 양극화'로 심화되어 전개되는 양상
- 구조와 원인: 고용·소득의 양극화까지를 포함할 때, 양극화의 외적·내적 원인으로 인해 현재 '산업·기업간 성과 격차 → 소득·고용격차 → 혁신기반(인적자원, R&D투자)격차 → (다시)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양극화의 (악)순환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
- 전망: 경기회복과 함께 부분적인 해소가 예상되나, 양극화의 대·내외 구조적 요인은 지속 내지 심화될 것이며, 그만큼 양극화 문제는 지속 내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중단기간에 성장률의 추세적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성장률의 회복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림1> 경제양극화의 구조와 원인



- 정책대응 방향: ‘저성장속의 격차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선도부문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경쟁력 낙후 부문의 자생능력을 끌어올리는 ‘兩動전략’ 즉, ‘동태적 시각에서의 동반성장’ 전략, 이를 위한 개방,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한 정책혁신이 필수적임.
- ‘유형적 양극화에서 개체적 양극화’로의 국면 전환에 따라 특정집단의 ‘평균적’ 성과의 의미가 퇴색 → 개별 경제주체 단위까지의 보다 차별화·분화된 정책적 접근과 이를 위한 정책인프라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

## 2. 양극화 추세 및 전개 과정

-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양극화는 경쟁력 선도 부문(산업/업종/기업)과 낙후부문간의 성과 격차(생산성, 이윤 등)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력 낙후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되어 경제전체의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경우임.

□ 이러한 성격의 양극화는 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진행 →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 → 2000년대 초의 내수부진 등 이후 경기순환적 요인이 가세하여 심화(‘유형적 양극화에서 개체적 양극화’ 성격으로 심화 전개)

① 1단계 요인(90년~현재): 생산성이 급상승하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하락한 반면 생산성 침체부문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는 ‘탈산업화’ 지속

\* 총 취업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89년 28% → '10년 17%로 11%p 하락

- 탈산업화는 선진국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임금)이 제조업보다 낮은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는 것이 특징

\* 서비스업은 2009년 현재 GDP의 60%, 고용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의 80-100% 수준)

② 2단계 요인(외환위기 이후~현재): 위기 이전과 달리 고생산성, 고성장업종(주력제조업, 금융보험, 건설업 등)의 대기업들이 고용 대량 방출 ⇔ 저생산성 부문인 중소제조업체 및 생계형서비스업의 고용이 급증

③ 3단계 요인(경기침체 이후) : 서비스업의 기업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세업체의 진입 증가로 업체과다 상태에 있던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운수·건설업에 대한 내수 격감 → 해당 업종의 자영업주 및 임시일용직 등의 중·저소득계층의 고용과 소득에 직접적 타격

- 2000년대 중반 전후: 외환위기의 산업·기업 구조변화 과정(대기업 구조조정, 중소벤처붐에 이은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 되면서 ‘기업간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제전체의 새로운 구조변화의 양상 관측

- \* 혁신형 중소기업의 침체, 서비스업의 지식집약화·기업화 본격화, 세계적 다국적기업 수준에 도달한 소수대기업(상위 10개 등)의 재약진 및 사업구조 고도화 등

### 3. 양극화의 원인과 전망

□ 양극화는 대내외 경제환경 급변, 국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지체/누적된 정책적 대응상의 문제 등의 3가지 구조적 요인(<그림1> 참조)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중·장기간 지속 내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에서 특히 1) '산업의 허리'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하며, 2)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문제

- 부품·소재 등 산업의 '허리' 부문이 취약하여 핵심중간재의 외주 증가 (90년대 중반 이후) => IT, 자동차 등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고생산성/수출 선도업종의 혁혁한 사업성과가 국내 수요 창출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음.

- \* 수출의 부가가치창출효과: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하락(93년 0.71 → 00년 0.63 → 09년 0.56)

- \*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18.8%('90) → 24.7%('09))

-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의 비중은 최근 감소세이나 아직 30% 수준(무보수가사노동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 경공업부문 업체 다수(전체 고용의 약 6% 내외)는 물론, 중화학공업부문의 소규모업체(전체고용의 5% 내외), 영세농가(전체농가의 50% 내외)의 한계화가 계속 진행될 것임.

- 또한 외환위기 이후 주된 고용흡수 창구 역할을 하였으나 근래에 기업형 업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생계형서비스업, 건설업에 있어서도 다수 영세/소형업체의 한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

#### 4.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및 초점 과제

□ 전 산업에 걸쳐 진행 중인 추세적 양극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불가피한 과정이며, 현재의 경기침체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적체된 경제 구조조정 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고도화를 가속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잠재력: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부문이 비대하고 사업·사회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고생산성/기업형 서비스부문이 미숙한 구조적 문제가 크며, 그만큼 향후 구조조정을 통한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 높음.

- 정책여건 변화: 낙후도가 심한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노력도 현저히 제고되고 체계화되고 있으며(현 정부 들어서도 5차 종합대책, 13차 대책 등) 이를 배경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산업 전반의 구조고도화 및 질적 발전 움직임이 포착

□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기업과 사람'의 원활한 이동을 목표로 하여 시장 경쟁환경을 정비하고 혁신 잠재력이 있는 주체의 기술인력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항구적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

-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규합하는 시장경쟁 환경 실현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체, 취약근로계층(고령 영세농민·생계형자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이를 통한 청년·경력근로계층의 공공·복지서비스부문의 진입/이행 유도

#### □ '기업' 측면의 주요 정책과제

- 사업성, 경제기여도에 비해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부품소재 및 섬유의류·음식료·기타 경공업 등에 대한 지역클러스터정책 등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업에 있어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타파(사업자단체 혁신 및 지역정부의 역할 강화). 이와 함께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책지원 체계 시정
- 중견기업의 공백상태를 메우고 경쟁적 시장 환경으로의 전환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외부자원 흡입 노력 지속
  - 세계경제의 새로운 다극화(multi-polarity) 추세에 부응하는 신흥 성장시장(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에 대한 전략적 진출 강화
  -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의 혁신: 전략적 사업서비스의 구미계 투자 및 특히 부품소재분야 유럽계 중견·중소기업 유치

#### □ '사람' 관련 주요 정책과제

- 교육은 물론 전직·전업·창업 등을 위한 개인주도의 인력개발투자를 촉발하고, 공공·민간재원을 조화하여 적극 지원(사람에 대한 투자의 뉴딜)
  - 저소득학생에 대한 용자 및 장학금(근로 및 무상)제도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 경력근로자의 재교육/재훈련 프로그램 대폭 강화(기금신설 등을 통한 재정지원 강화와 함께, 민간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견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전직프로그램 강화 →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고 전문사업자서비스시장 확대

\* 농가, 서비스부문 비임금근로자 등 현행 제도하에서의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계층을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 고려

- 지역중심의 평생교육훈련제도 구축을 위한 교육·노동·복지부문 관련 제반 정부사업 및 정책추진체계 정비(일선 집행기관 개혁 포함)
- 교육훈련, 정보제공,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방정부와 사업자 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사업자단체의 조직화, 학습조직화)

#### □ 정책추진 환경 개선

- 서비스업 정책: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기초로 기존 법령 및 추진체계 개선;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 정책: 정책당국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정부 및 지역혁신 주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 지배구조 개편; 조정기에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관련 정책·사업의 합리화와 착근

## ❖ 첨부 #2. 글로벌 부문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요약

#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차 문 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1990년대 중반 이후 투입요소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4%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쳐
  -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함.
    - 정부정책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확실
  -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며, 더 높아질 여지는 크지 않은 편
  
- 한국 경제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글로벌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효율성 제고
  - 더 효율적인 자원 조달, 더 큰 시장 확보 : 개방
  - 개발협력 등을 통한 국격 제고
  -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 한국의 제도적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
  - 청렴 등의 제도적 환경 개선은 경제성장이나 국가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경쟁과 자유로운 진입은 규제가 덜한 경제에서 성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발전정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음.
-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수출지역 다변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넘어서 의식과 제도 변화를 통한 진정한 개방이 필요
  - 현 상황에서 한국은 WTO, FTA, Sector Agreement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신흥시장 개척으로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FDI 유치를 확대하면서,
  - 더 나아가 의식과 제도 변화를 통한 진정한 개방을 이루어야 함.
-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식공유 등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은 ODA 규모의 확대와 질적 향상 도모, G20 참여 등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의 강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의 국격 제고 추구해야
  - 글로벌 개발협력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준수하고 우리만의 특수한 개발경험만의 비교우위를 접목시켜 효과적인 개발협력모형을 창출하려는 노력 필요
    -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정책 지식을 주목,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또한, 주요 국가간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시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개발협력 분야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서비스산업이 신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잠재력의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고용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위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선결과제

- 서비스산업은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큰 편이며, 국제수지 개선효과, 내수확대 및 미래 수요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
- 성장기여도가 높은 서비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교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한국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R&D, IT 혁신과의 융합, 개방, 강력한 선진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 시급

❖ **첨부 #3. 「한국경제의 재조명」 5·6차 공개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b>&lt;5차&gt; 기업경쟁력 부문 공개토론회</b>	
09:30~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10:10	<b>개회사</b> 현오석 KDI 원장
10:10~10:30	<b>발 표. 산업·기업 양극화와 산업 경쟁력</b> 우천식 KDI 산업·경쟁정책 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0:30~12:00	<b>사 회</b> 현오석 KDI 원장 <b>토 론</b>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1본부장 최영희 한국생산성본부 연구기획단 팀장
<b>&lt;6차&gt; 글로벌 부문 공개토론회</b>	
13:3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00~14:10	<b>개회사</b> 현오석 KDI 원장
14:10~14:30	<b>발 표.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b>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14:30~16:00	<b>사 회</b> 현오석 KDI 원장 <b>토 론</b>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주동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